



# 發 刊 辭

學術委員長 蘇 秉 昌



우리 韓藥業士들은 民族醫藥의 正統的 主體로서 百年의 悠久한 歷史를 通하여 仁術을 베풀어 왔으며 特히 農漁村 奧地 僻地에서 奉仕해온 事實은 어느 누구도 否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先人 名醫들의 秘方과 名方도 많았으나 이것을 蒐輯하여 記錄으로 傳함이 微弱하였고 더구나 우리 韓藥協會는 後輩가 輩出되지 않고 會員은 老齡化로 날로 數가 줄어들고 있으며 따라서 高貴한 處方과 資料들이 死藏되어 가는 매우 안타까운 實情입니다.

이리하여 일찍이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중 學術誌를 만들 것을 決心하고 大韓藥 학술지를 매년 발간하여 왔습니다.

또한 여러 學術委員會들과 心血을 기우려 全國에 散在한 會員들의 經驗方 또는 臨床中 特效方, 愛用方等を 널리 蒐輯하여 東醫驗方新纂을 長時間에 걸쳐 精誠을 다하여 編輯하여 發刊하였고 各界 各層의 뜻 있는 분들이 東醫寶鑑以後 가장 훌륭한 著書라는 極讚과 聲援이 藉藉하여 우리들은 自負心에 가슴 뿌듯함을 느낀바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冊은 品切되었고 全國 各處에서 冊 購入要請이 殺到되어 名實相符한 增補東醫驗方新纂을 出刊하여 後學들과 會員諸位의 仁術寶業에 臨床指針書로 많은 參考가 되리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번 8號誌에는 蔚山支部 全會員이 평소에 소중히 여기던 秘方 또는 愛用方을 보내 주셔 대단히 感謝하오며 다음 9號誌에는 더욱 많은 支部의 聲援과

아낌없는 投稿를 바랍니다.

그리고 2004年 5月 6日 慶尙南道 咸陽 山淸의 韓方休養觀光團地에 醫聖 許浚先生의 巨大한 銅像을 建立하여 除幕式을 우리 全 會員이 한 마음으로 參與하게 되었고 이 事業에 獻身奉仕하신 박찬수님을 비롯한 關係者 여러분의 勞苦에 致賀드리며 이로 因하여 우리의 會勢確立과 우리의 存在를 널리 알리게 되는 契機가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不肖의 拙筆로 許浚先生의 一代記 및 銅像 建立記 贊助人名錄 등을 쓰게 되어 感懷가 깊고 同時에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不足한 이 사람이 學術委員長職을 맡아 3年 任期를 마치는 동안 大韓韓藥 5號, 6號, 7號와 增補東醫驗方新纂을 出刊하였고 任期가 끝났으나 不德한 나에게 한 번 더 學術委員長職을 맡아 달라는 委員님들의 懇曲한 付託에 할 수없이 이를 受諾하고 이어 今番에 또한 第8號誌를 發刊하게 되어 기쁜 마음 禁할 수 없습시다.

今番 出刊한 學術誌를 만드는데 投稿하여 주신 여러 會員님께 다시 한 번 感謝드리며 다음 9號誌는 더욱 좋은 冊이 되도록 努力하겠습니다.

小生の 智慧와 能力의 限界가 있어 未熟한 部分이 많이 있습니다.

會員 여러분의 愛情어린 忠告와 指導鞭撻을 바라옵고 此後에는 보다 더 훌륭한 第三의 玉書가 刊行되기를 다시 한번 期待하며 삼가 發刊辭에 가름하는 바입니다.

2004년 4월 20일